아버지를 본다면

(요14:7~14)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를 본다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꽂혔던 말씀들입니다.
특히 이 빌립의 요청,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가 신앙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진 게 중학교 때부터였고, 그전에는 그저 부모님 하시는 대로 따라 하는 생활이었다고 하면, 제 자신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연구를 하고

했던 것이 중학교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치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의 맥락에서 볼 때 몰지각해 보이는 이 빌립의 요청을, 제 자신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반복해서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한번 본다면 족하겠나이다.'
이 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쉬운 우리말 성경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빌립도 신앙이 언뜻 우리가 느끼기에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는 듯 한 그런 요청? 아닙니다!
그 영광스런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아버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바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적되었던 미해결의 문제들, 정말 마음속에서 바라다 바라다가 이제는 한계를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저 구석으로 내려 보냈던 그런 소원들, 아니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뵙게 되고 뵈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는데, 그런 사랑 앞에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요청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보기만 하면 그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보여만 주세요!'
아, 정말 아버지를 보면 좋겠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의 말 속에 참 깊은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더 바랄 게 없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아버지를 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을, 조물주를 내 아버지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뵙게 된다면 더 이상의 성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성공이 남아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나라에서 보좌를 펼치고 앉아계신 하나님, 천군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보게 될 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증될 수 있는 것은, 빌게이츠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뵙게 되면 세계 제일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마음에서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인

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됩니다.
박 근혜 씨가 오늘인가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임식 전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뵙게 된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색이 다 바래버리고, 대통령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에요.
변화산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아도 그렇고,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 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봐도 그렇고,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봐도 그렇고, 사도바울의 늘상적인 고백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진짜 뵙고 나면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원하고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하나님을 뵙잖아요? 나라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이여! ~'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의미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의미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도 의미가 없고, 김구 선생이나 김좌진 장군에게 있어서의 나라의 독립이나 미래 같은 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의미가 있는 단 한 가지,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좋다고 여겨서 성취하고 싶었던 모든 소원의 빛을 바라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바 그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경주해서 하고 싶은 유일한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얘깁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아버지를 뵈었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임금이 되실 수 있었고,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애타게 찾는 부귀를 다 쥐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오직 하신 것이라고는. 이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없고 무력화시키게끔 좋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사셨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국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맛있는 청국장을 젓가락으로라도 맛도 안 봅니다.
나는 맛도 안 보고 만드는 청국장이 왜 그리 간이 잘 맞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입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원하니까 기꺼이 원할 때마다 해줍니다.
청국장 끓일 때는 자기는 찌개가 없이 먹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청국장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눈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5감관으로 확인시켜주시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접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믿으라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으로 믿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그 영광스런 보좌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 앉아계신 스테반이 본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천군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연합하고, 당신에게 마음을 줌으로써, 즉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접근해간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듯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의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는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 소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김구 선생님이 나라 사랑한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도 하나님을 본다면 여지없이 나라가 망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전과15범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시는 감옥에 들어갈 일 안 할 것이고, 살인강도도 마찬가지이고, 화엄사 주지스님도 하나님을 진짜 뵈면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모든 것, 돈과 벼슬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출세 같은 것들을 소원하고 좋아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보고 나타난 이런 마음 상태는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이지.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본 것으로 믿고 여기고 인정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망각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만을 봤을 뿐인데 진짜 하나님을 봤을 때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거할 천국의 집을 다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화엄사 주지스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니까요?
믿음은 뭐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보았을 뿐이고, 말씀을 통해 전

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접할 뿐인데, 진짜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어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고는 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도 나라의 독립이 우선적인 내 마음의 걸림돌이 아니고 과제가 아니라, 어떡하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한 가지만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진짜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아버지를 본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으로 살던 자리가 비었다, 인간으로 살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아버지가 인간으로 살던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던 상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런 상태이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인간으로 살 때와 똑같은 아버지와의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으로 사실 때 하나님아버지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합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아버지를 본 것으로 여겨 이 땅에서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분이면 족하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로 내려오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텐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가려진 채로 안 보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 본 것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짜 보았을 때의 그런 마음을 미리 가져야 되니까, 이게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떡 먹다가 목이 메면 김칫국 마시는 게 순서인데, 이건 떡이 아직 주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뵈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을 미리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못 뵈었지요?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만 뵙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을 보고 하나님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뵌 것으로 여겨서 빌립의 말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 되라는 얘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도 같이 죽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마음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마음가짐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거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님만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바랄 것이 없게 될 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뵈었을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거지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을 주님에게서처럼 해나가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게서도 일어나고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단지 나는 메시아가 아닐 뿐이지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나가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안 하실 수도 있지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 없으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보면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는 족한 마음가짐, 더 이상 이 지구 위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해서 나타나게 될 결과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아

버지를 뵌 것으로 여기고 족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
족하겠나이다,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네 안에도 들어가실 것이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너의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빌립이 멋진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유도해내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아버지를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주님만 보고 아버지를 본 것으로 여겨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이 먼저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은 믿음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이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의미를 두고 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